

▣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결정내역

○ 비지정형(13건)

연번	단체/개인명	프로그램명
1	2W(홍아미)	글 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
2	검은빵(박남희)	함께 놀당갑서양!(함께 놀다가세요)
3	김미양	식탁에서 쓰는 편지 -소설과 현실 사이, 당신의 안부를 묻다
4	김석영	만지'시'요-촉각 낭독회
5	김현경(김유담)	본격 부동산 문학 토크-갭과 갭 사이
6	동인 아시아(박지음)	소설가와 소방관의 만남
7	박미라	숨과 씬 사이 문학이 스며들 때
8	박진경	고양이와 나 사이에서 -김혜진 소설<3구역,1구역>에서 그려진 둘-사이 관계성에 대하여
9	신여성(배민정)	관계,사랑,성 글쓰기
10	아트포그린(백승서)	거북이와 플라스틱
11	여자 셋이 모여(김리윤)	여자 셋이 모여
12	우리나비(한소원)	문학에 깃든 : 공존과 연대 - 갈등을 넘어 평화로!
13	토픽(이지연)	대구 근대문학 인문 산책

○ 지정형(7건)

연번	단체/개인명	프로그램명
1	공공연희(옥민아)	강독과 낭독 사이 : 관계의 가능성
2	듣는 소설(최정화)	사물의 생애사
3	웹진 아는사람(한소리)	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 <문85TI>
4	인문엠앤비(이노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5	창작동인 뿔(최지인)	애도하는 시
6	창작동인 컴(이소연)	괄호 채우기 낭독회-()와 () 사이
7	팀 분리수거(한연희)	우연과 필연 42(사이)

■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 2022년 9월 30일(금) 10:00~12:00, 대학로 문학나눔 사무실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주제는 ‘둘 사이’이다. 이 주제는 무대와 객석, 쓰는 이와 읽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문학을 매개로 일어나는 낯설고도 흥미로운, 수상하면서도 호기심어린, 집중적이고도 확장적인 경험을 통해 ‘공감’, ‘연대’, ‘공동체’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도록 마련되었다.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독자친화성’, ‘적합성’ 및 ‘효과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총 45건(비지정형 32건, 지정형 1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먼저 진행하였고, 이를 수합 및 정리하여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대면 회의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비지정형의 경우 13건, 지정형 7건, 총 20건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기획서 내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였는지, ‘둘 사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문학 향유자들의 능동성을 역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는지, 해당 내용이 실현될 때의 상이 실질적으로 그려지는지 등이었다. ‘둘 사이’라는 주제에서 ‘둘’이란 표현에만 집중하다가 ‘사이’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매겼던 평가 점수를 합산했을 때 상위권인 점수의 제안서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이나 단일한 장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고자 하였다. 단, ‘지정형’의 경우 시 장르 분야의 지원이 특히나 많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시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낭독’에 한정되어 있는 기성 문학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둘 사이’라는 주제에 맞춰 작가와 독자 사이가 인터랙티브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력을 보여주었다. ‘문학’ 활동의 기본 요소인 ‘읽기’와 ‘쓰기’가 더 확장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읽기와 쓰기를 넘어선 활동이 개발될 가능성 등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기대된다.

이번 문학주간 스테이지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문학에 대한 벽을 허물고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 그 과정을 통해 문학이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정된 이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